

현대 불교

전법

22	국내의 포교현황
23	좌담 '차세대 포교'
24	포교사 설문분석
26	전법현장
27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만약 부처님이 녹야원(사르나트)에서 초전법륜을 굴리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만날 수 있었을까. '비구들이여 모든 이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돌이 가지 말고 혼자 떠나라'고 당부하신 부처님의 전도선언은 녹야원의 최초 설법에서 비롯됐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이 '부처'로 공인된 진리의 첫 성지 현장순례(법정순례의 '인도기행'과 고은씨의 '신앙오천축 국전 발해')를 통해 '전법'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편집자 주)

내가 가본 녹야원

인간의 근원적 모습

법정(스님)

사르나트의 옛 이름은 선인(仙人)이 사는 프리가다(鹿野苑). 일설에는 불교경전에 나오는 브라흐마뉘타왕이 이

이다. 그러므로 중도는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다.

녹야원의 드넓은 경내에는 여기저기 승원(僧院)과 전각(殿閣)의 터가 남아 있고, 한쪽에 아쇼카왕 석주가 세워져 있어 그 모습이 돋보인다. 그리고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뛰놀았



◇흥으로 조각된 부처님 최초의 설법모습.

진리의 첫성지 상징 다메크탑 "우뚝"

부처로 공인된 현장...8정도 설법 흠조각 보니 눈시울

곳을 사슴들이 살도록 내놓았기 때문에 '사슴의 동산'이 되었다고 한다.

녹야원의 상징은 입구에서 서쪽으로 우뚝하게 솟아있는 다메크탑(大法眼塔)이다. 이 탑은 굽타시대(서기 320~650년)에 세워진 것으로 상층부는 허물어져 있지만 현재도 높이가 43m, 기단은 직경이 30m에 이른다. 지상에서 11m까지는 커다란 돌로 층층이 쌓아올렸고, 그 위는 벽돌탑으로 되어 있다.

이곳 어디쯤에서 부처님은 최초의 설법(初轉法輪)을 하였을까? <전법륜경(轉法輪經)>에서는 최초의 설법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이 두개의 치우친 길을 버리고 올바른 길, 중도(中道)를 깨달았노라. 이 중도에 의해서 고통과 인식을 얻었고, 광안과 깨달음과 눈뜸과 열반에 이르렀노라."

중도(中道)는 불교의 근본적인 사고방식 중 하나다.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적당한 태도를 가리키는 아니라, 대립적으로 생각되는 양극단을 부정하고 가장 합당한 자주적인 행동양식을 취하는 것

을 사슴의 무리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같이 사육되고 있다.

녹야원 후문 쪽으로 나가면 '사르나트 고고박물관'이 있다. 작은 규모에 비해서는 뛰어난 소장품들이 많다.

바른쪽으로 돌아서면, 내가 보기에 이 세상의 불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초 설법의 모습을 새긴 전법륜상(轉法輪像)이 이곳에 있다. 눈을 아래로 쓴 소년처럼 옛된 모습, 온화하면서도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 이런 미소가 바로 인간이 지나야 할 근원적인 속 모습이 아닐까. 광안과 고요를 머금은 잔잔한 이런 미소야말로 인류 구원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다. 코와 손가락이 약간 파손되어 유감스러

웠다.

4월5일 동안 사르나트에 머물면서 나는 이 불상이 좋아서 세 차례나 박물관을 찾았다. 불상 앞에 마주설 때마다 아름다운 하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신적인 감동이 어떤 것인가를 거듭거듭 헤아리게 되었다.

4월5일 동안 사르나트에 머물면서 나는 이 불상이 좋아서 세 차례나 박물관을 찾았다.

우르발라 마을 치너 수자타의 우유죽을 얻어마심으로세 다섯 동지로부터 "파게자다! 너는 타락했다!"라는 규탄을 받고 그들이 떠나버렸던 것이다.

"비구들이여 잘 들어라. ...내 그대들에게 법을 말하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허사였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서는 안된다. 세번의 거칠 끝에 마침내 그들은 부처님의 발에 귀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만큼 부처님의 말은 간절한 바 있었다.

"이것이 있으므로 자것이 있다. 이것이 생기므로 자것이 생겨난다." "비구들이여, 이 세상에는 두 번(邊)이 있는데 출가자는 그 두 번에 가까이 가서는 안된다. 비구들이여, 여래는 두 번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깨달았다."

이 중도의 각성이야말로 부처님의 대각(大覺)을 가능케 했고, 바로 이 선언이야말로 그의 최초 설법(說法)의 서설(序說)이었던 것이다. 중도, 이것이 곧 8가지 바른

길이 아닌가. 지혜의 등불을 비추어 여래의 청정한 몸을 보게 하신다...

진리의 처녀지, 진리의 첫 성지인 이 사슴동산에서 비로소 부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부처로 공인된 것이다. 물론 그가 부다가야의 나무 아래에서 진리를 깨달은 새벽부터 우주 만상의 축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현실의 사자들로부터 '아, 부처님이시여, 스승이시여' 하는 칭호와 대상이 된 것이다.

지금도 그 유적지의 갈색 흙벽을 바닥의 일부가 남아있고 부처님의 명상처라고 전하는 대지(臺地)도 있다.

최초의 설법 광경을 흥으로 만든 조각에 색을 칠해서 부처님과 다섯 제자를 배치하고 있는데, 중국 한국 일본의 그것에 견줄 바 없이 질박한 것이었다.

본디 녹야원은 3세기 무렵의 아쇼카 왕조에는 하나의 승원(僧院) 도시여서 그 규모가 자못 큰 대사원과 건물들이 즐비했던 곳이다. 그러다가 13세기 회고도의 승니(僧尼) 대학살과 승원 파괴로 수프만 겨우 남아 오늘에 이르렀다. 중도, 이것이 곧 8가지 바른

길이 아닌가. 지혜의 등불을 비추어 여래의 청정한 몸을 보게 하신다...

진리의 처녀지, 진리의 첫 성지인 이 사슴동산에서 비로소 부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부처로 공인된 것이다. 물론 그가 부다가야의 나무 아래에서 진리를 깨달은 새벽부터 우주 만상의 축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현실의 사자들로부터 '아, 부처님이시여, 스승이시여' 하는 칭호와 대상이 된 것이다.

지금도 그 유적지의 갈색 흙벽을 바닥의 일부가 남아있고 부처님의 명상처라고 전하는 대지(臺地)도 있다.

최초의 설법 광경을 흥으로 만든 조각에 색을 칠해서 부처님과 다섯 제자를 배치하고 있는데, 중국 한국 일본의 그것에 견줄 바 없이 질박한 것이었다.

본디 녹야원은 3세기 무렵의 아쇼카 왕조에는 하나의 승원(僧院) 도시여서 그 규모가 자못 큰 대사원과 건물들이 즐비했던 곳이다. 그러다가 13세기 회고도의 승니(僧尼) 대학살과 승원 파괴로 수프만 겨우 남아 오늘에 이르렀다. 중도, 이것이 곧 8가지 바른

부처님의 전법 여행

석가모니 부처님은 북부인도인 카필라바스투(Kapilavastu)에서 태어났습니다. 쿠시나가라(Kushinagara)에서 열반하시키까지 광대한 인도대륙을 누비며 숭한 중생들을 교화하셨다. 당시의 인도에는 마가다(Magadha)·코살라(Kosala)·아반티(Avanti)·방사(Vamsa) 등의 대국들이 있었다. 그 이전의 인도문화가 인더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개된데 반해, 주



남북 450km 동서 250km
노숙하며 험한길 왕래

라까지 걸는데 약 6개월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의 여행길은 1년 남짓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리라 고 본다. 전도 초기에는 주로 남부인도의 마가다에 오래 계셨다. 그것은 밤비사아 라왕과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가에는 주로 북부인도의 코살라가 그 무대였다. 반면 만년에 이르러 중부인도, 특히 바이사알 리를 중심으로 교화활동을

과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국이 멸망하였고 북부의 정치 혼란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안락으로 보면 크게 넓은 지역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2천5백년 전의 열악했던 환경을 영두에 두면 그의 행적은 가히 초인적이었다. 맹수와 독충, 미개인이 무굴거려는 삭막한 지역을 그는 묵묵히 여행하셨다. 혹은 나무밭에서, 혹은 동굴에서 노숙하면서 기아없는 여정을 멈추지 않으셨다.

정병조 교수 (동국대 도서관장)



◇녹야원의 상징인 다메크탑.

지혜의 등불 비추니

고은(시인)

부처님은 깨달은 뒤의 기쁨을 정통적인 수행자들의 방식대로 혼자 지니고 있으면서 그 기쁨을 흠뻑 누리는 것으로 진리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처음에는 그의 진리를 어떻게 처리할까 매우 고민하는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부처님은 부다가야에서 이곳 사슴동산까지 2백50킬로미터나 되는 먼 거리를 맨발 걸음으로 왔던 것이다. 그의 최초 설법을 위해서였다.

오늘날의 바라나시에서 20리쯤 되는 곳의 광안 현군데이다. 사르나트.

우드텍 자연주의

집안으로 옮겨놓은 대자연의 숨결

온돌전문 나무마루계 우드텍

거실에서 주방·온돌방까지

마루난방에 적격입니다

뛰어넘, 뒤돌림 등 기존 목재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온돌 전용 나무 마루재입니다.

내구성이 강합니다

강화 아포크 처리에 의해 어떠한 마루난방의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JAS(일본 공업규격)보다 약 2배의 내마모성을 가진 사이렉스 처리로 목재 특유의 아름다움이 언제나 유지됩니다.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재와 목재의 결합부분을 전용접착제로 견고하게 결합하는 네다레스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원하는 곳 어디나...

주요 시공실적

- 현대건설 평강동 VILLA
- 현대건설 110마 주강북점
- 나산건설 보래매 관광복합
- 나산건설 서초 주상복합
- 동부건설 우면동 VILLA
- 진동아건설 암석동 VILLA
- 현대건설 금천동의 VILLA
- 에스 DEPT(경동용)
- 롯데 DEPT(경동용)

WODTEC

우도텍 (주) 대표이사 김민우

원도산업(주) WODTEC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454-56 (도곡전시장) 동해01 전화 579-2730-4

분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23-5(지평빌딩) 전화 572-0662 / 팩스 575-9728

주요사업: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건축 자재, 친환경 건축 자재, 친환경 건축 자재

서울 대리점 구산 프라eza선 (02)515-9653-4
공민상사 (02)564-3171

경기 대리점 이진산업 (034)997-9151-9
원익 (034)2701-8065
진흥주택 (033)282-7528
원익산업 (032)549-2218-9

대구 대리점 동방상사 (053)766-9991

광주 대리점 규림상사 (062)676-2758

대전 대리점 규림상사 (042)932-3660